

전주, 세계 속의 피지컬시 선도 도시로

시, '피지컬 AI-J 밸리' 중심으로 기업·인재·기술이 모이는 미래 산업도시로 단계적 조성

전주시가 '피지컬 AI-J 밸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전주만의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피지컬 AI-J 밸리'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업과 인재, 첨단기술이 전주에 모이도록 만들어,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축 '피지컬 AI'는 최근 관련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 전략과 산업 구조, 경제지표까지 아우르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AI 혁명의 중심에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대한민국이 AI를 현장에서 실현시킬 '피지컬 AI'의 실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제조·자율자동차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미래 핵심 기술이다.

정부도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 삼아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피지컬 AI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북이 '5국 3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피지컬 AI-J 밸리(안)

숙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주 또한 대한민국 피지컬 AI 제조 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이미 시는 전북대학교와 함께 산업특화형 피지컬 AI 선도모델 PC(개념검증)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그 출발점으로 시는 피지컬 AI를 지역의 100년 먹거리이자 전주 대변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피지컬 AI-J 밸리'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설 연휴 종료 후인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적시 쓰레기 일제 정비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다중 집합 장소와

화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형 혁신밸리로, 대한민국과 글로벌 피지컬 AI 산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피지컬 AI-J 밸리에 기업과 인재, 기술과 꿈이 모인다는 방향의 일환으로 기업인파 연구 인력, 청년 인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을 모두 갖춘 생활 SOC를 대거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시는 J밸리 조성을 통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 피지컬 AI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청년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구개발 및 기회

발전특구 등 관련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피지컬 AI 관련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피지컬 AI-J 밸리를 중심으로 앵커기업과 지역기업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스타트업도 육성하여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카이스트 등과 연계해 피지컬 AI 전문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AI 대전환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밸리 조성 기획부터 핵심 인프라 구축까지 전담할 '피지컬 AI-J 밸리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산업단지와 전북의 ICT·SW 기업이 집적화돼 있고, 우수한 대학·연구 인재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실증과 확산에 최적의 준비된 도시"라며 "미래 산업 전환의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전주시는 '피지컬 AI-J 밸리'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 및 기회

기회를



전주시는 4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공사 현장 도급사 관계자와 건설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안전기원 및 성공적 준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주형 BRT '무재해 시공' 만전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안전기원·성공적 준공 위한 결의대회 가져

전주시가 도시의 교통체계 혁신을 이끌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성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공사 현장 도급사 관계자와 건설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안전기원 및 성공적 준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린대로 BRT 사

업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하고, 공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재해 시공'을 선언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 사회 구현 △ 3대 핵심 사고(추락, 충돌, 질사) 근절을 위한 위험 요인 제거 △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안전 문화 실천 등을 담은 결의문도 낭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 및 기회

기회를

전주시 청춘★별채 24호 공급 추가 공급

전주시 평화동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24호가 추가 공급된다.

시는 4일 평화동 신축 청춘별채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신축주택의 준공식 및 제막식을 가졌다.

'청춘★별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혁신적으로 낮춘 전주 대표 청년 주거 정책으로,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한 달 임대료 1만 원(보증금 50만 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청춘★별채'는 총 24호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거 타입은 1룸 3호와 2룸 21호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준공식에 이어 시설 점검을 마친 후 오는 3월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 및 기회

기회를

전주시, 설 연휴 청소 관리 종합대책 추진

권역별 청소 대응체계 가동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 명절 청소 관리 종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명절맞이 청소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 관리대책은 설 연휴 전·중·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명절 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공백을 최소화

화하고,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과 관광지 등 청결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설맞이 취약지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투기지역과 장기 방치 쓰레기 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동별로 도로변과 관광지, 도심 공원 등을 일제 점검하고, 소량 쓰레기는 환경관리원이 자체 처리하되 대량 쓰레기는 기동반과 정비를 투입해 신속히 정비하게 된다.

또한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

부터 18일까지는 일요일인 15일과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날에 생활쓰레기 수거를 실시해 수거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시 지역 환경관리원은 오는 14일과 16일, 18일에 근무하게 되며, 청소 대행업체도 오는 14일과 16일 정상 근무를 통해 연휴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후 시는 설 연휴 종료 후인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적시 쓰레기 일제 정비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다중 집합 장소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적치현황을 파악해 성상별 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연휴 이후까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풍남문관광, 남천교, 오거리광장, 영화역거리, 걸고싶은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7개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인 청소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이들 중점관리구역에 환경관리원을 집중 배치하고, 야간 가로청소를 병행하는 등 관광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설 연휴 기간 청소상환실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민원이 즉각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 및 기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아중노인복지관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운철)는 4일 전주시 인후동 아중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준비 사항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김운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을 앞둔 아중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운영 계획 및 인력 구성, 어르신 이용 프로그램, 공간 활용 실태 등을 확인

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아중노인복지센터 건물 1~2층과 5층에 위치한 아중노인복지관은 경



로식당과 책架단련실, 강당,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 및 기회

기회를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